朝鮮日報

今日四面

論說

求職同盟과 求食同盟

生存運動의 一考察

一

職業이 업는 것이 一大患이다 個人의 單獨으로 求하기 어렵다 할진대 同盟하야서 職業을 求하는 것이 一方策일 것이다 밥이 업서서 살 수 업다 밥을 求하지 아니할 수 업다 同盟의 힘으로써 밥을 求하는 運動 即 求食運動을 닐으키는 것이 一方策일 것이다 오늘날 朝鮮人의 各種運動이 究竟의 目的은 生存을 求하는 運動이오 職業과 밥이 生存 그것을 決定하는 手段이라 할진대 모든 運動이 結局은 求職運動이오 또 求食運動이 아닌 者가 업다 하려니와 吾人은 모든 主義 理想을 通하야서의 運動보담도 다만 赤裸裸한 求職運動과 求食運動을 닐으킴이 一種의 戰術이라 한다

二

權力閥과 資本閥의 門戶를 차저서 懇懇히 自己의 事情을 하소하고 相當한 職業을 엇고저 함이 所謂 求職運動이다 그러나 이러한 屈辱的의 個人的 求職運動을 이름이 아니다 計가 窮하고 力이 不足하야 主義도 不計하고 同志도 팔으면서 오즉 物欲을 쏘처 趨拜하는 것이 또한 求食運動의 一條件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個人的인 求食運動은 다만 그의 精神的 自殺行爲라고 할 수 잇는 바이오 아모 時局發展의 勢力이 될 수는 업는 것이다 오즉 求職 그것을 目標로서 求食 그것을 目標로서 一大同盟을 만들어서 强猛한 民衆的 運動을 닐으키는 곳에 돌이어 換新하는 局面을 期待할 수 잇다 하노라 그는 確實히 生存運動의 一方案이 될 것이다

三

朝鮮人의 보담 더 濃厚한 衛生氣質이 스스로 科學 技術 및 管理의 幹能 等에 不足한 바 잇는 것을 力說한 지 오래다 朝鮮人의 科學의 硏究熱과 技術의 習得熱과 및 管理의 幹能에 關한 眞摯한 熱心은 生存의 意慾이 自熱化하는 正比例로 高調되어야 할 것이요 科學 技術 幹能 等에 堪能한 識見 技術을 가진 또 가지게 되는 朝鮮人들은 모다 同盟하야 就職의 優先權을 主張할 것이다 朝鮮의 온갓 社會의 機關으로부터 外來者의 驅逐과 朝鮮人의 代充을 要求할 것이다 그리하고 그들의 同盟의 힘으로써 항상 그 民衆的 運動을 繼續하야서 時局의 發展을 成就할 것이다 鄕土人으로서의 優先權을 主張하는 곳에 强猛한 氣勢로써 흘수 잇는 일이 이리하야 漁業地로 林業地 場으로 農場으로도 其他 온 會機關 交通機關에까지 支配하게 함을 一目標로써 할 다

四

漁場에서 쪼기고 農村에서 쪼기고 또 都市에서도 쪼기는 人의 飢餓群들은 다만 男負하고 定處업시 漂浪함을 ... 는다 그들은 먼저 求食하는 ... 날으킬 것이다 ... 死同盟보담은 求食同盟을 맨들고 求食運動을 닐으키는 것이 려더 積極的인 또 鬪爭的인 일 것이다 求食同盟을 맨들어 의 運動을 行함에는 여러 가지 ...

政府는 全然瓦解

市中은 至極平穩

(北京十日發) 段執政은 公使館區域에 避難하고 賈總理 또한 逃走하야 北京政府는 全혀 瓦解되야 中央首腦者를 失하엿는 바 國軍은 秩序維持에 努力함으로 目下 市內는 靜穩에 歸하는 中이오 鹿鍾麟 等은 後任執政 及 內閣組織에 關하야 極力運動 中이더라

段氏는 交民巷에 避難

(北京十日發) 段祺瑞氏는 九日 夜늣게 交民巷(或은 日本兵營인듯)에 避難하엿더라

段執政下野

國軍의 自意通電

(北京十日發) 國民軍은 自意대로 段執政下野의 通電을 發하엿더라

段執政廢立宣言

(北京十日發) 國民軍은 今早朝에 「쿠데타」를 行하야 段執政邸를 包圍하엿스나 段執政은 이미 國民軍側에서 如此한 企圖가 잇슬 것을 覺知하고 邸外로 脫出하야 監禁을 免한 段氏는 大槪 何國公使館에 避難하엿다고 信하는 바 一方國民軍은 段執政의 廢立을 宣言하는 同時에 曹錕氏를 釋放하엿더라

今後起할問題

法統恢復과 內閣組織

(北京十日發) 段執政이 公使館區域에 避難한 것에 關하야 衛司令部는 是를 肯定하나 行方은 不明하며 段氏는 旣히 國民軍의 保護外에 在한 것을 言明하엿다는데 今後 起할 問題는 法統恢復과 內閣組織이더라

國軍政局維持努力

(北京十日發) 段執政의 監視와 曹錕의 總統復位를 斷行한 國民軍은 現內閣을 總辭職식히고 吳佩孚와의 關係上 顔惠慶으로 하야금 內閣을 組織식히려고 旣히 顔氏의 同意를 求한 바 가잇섯는데 國民軍側은 벌서 政局維持에 努力 中이더라

『段은 國家의 逆賊』

十日 鹿鍾麟氏의 布告

(北京十日發) 今曉 鹿鍾麟氏의 名으로 左와 如히 布告하엿더라

段祺瑞는 國家의 逆賊이다 本軍은 軍隊를 派하야 段祺瑞를 監禁하는 一方 大總統 曹錕氏의 自由를 恢復 後 吳佩孚氏에게 打電하엿는 바 其內容은 速히 入京하야 時局收拾의 任에 當한 것을 促하고 北京의 維持는 軍警이 其任에 當하엿나 하엿더라

段祺瑞의 罪狀列擧

(北京十日發) 鹿鍾麟은 大致 左와 如한 布告를 發하엿다

段執政은 就任 以來 苛酷橫暴가 無所不至하야 擅히 金法 問題를 解 ...

◇拘禁된 段祺瑞氏 ◇釋放된 曹錕氏

拘禁! 釋放! 好一對

吳氏上京을 催促

(北京十日發) 國民軍은 十日 午前 九時 吳佩孚氏에게 上京하야 一切事務를 處理하라고 打電하엿더라

吳氏는 傍觀態度

(北京十日發) 吳佩孚氏가 入京할 與否는 疑問인 바 大槪 吳氏는 國民軍과 奉天軍의 勝負가 날 때까지 現狀대로 傍觀할 터이라더라

賈德耀氏

執政代理受諾

(北京十日發) 段祺瑞氏와 共히 一時 行方을 감추엇던 賈德耀氏에 對하야 鹿鍾麟은 執政代理를 勸說하엿는데 賈德耀氏는 此를 承諾하엿더라

◇段氏下野同意

(北京十日發) 鹿鍾麟은 布告를 發하야 段祺瑞의 下野를 通電한 바 이잇섯는데 段은 自發的의 下野를 表示하엿는 故로 鹿鍾麟은 時局解決策으로
一、段祺瑞의 下野를 歡迎함
二、曹錕을 大總統에 復位케 함
三、執政府는 警衛隊를 黃寺에 駐屯케 할 事
를 提示하얏는데 段은 此에 對하야 同意를 表示하엿더라

外交團의 諒解要求

京師治安은 責任지고 維持

(北京十日發) 鹿鍾麟의 代表 交涉員은 各國公使를 訪問하고 今回의 事件內容을 詳細히 說明 後 京師의 治安維持는 責任을 負하고 此에 任하야 ...

法權會議中止

外交團의 緊急會議

段祺瑞拘禁說과

今後元首承認問題

日外務省의 空氣緊張

通信杜絕

北京과 外界間

(天津十日發) 直魯聯合軍의 總攻擊開始로 北京과 外界와의 電信은 全혀 杜絕하엿더라

쿠데타는

吳鹿提携結果

(北京十日發) 十日의 「쿠데타」는 國民軍 鹿鍾麟과 直隸派의 提携成立의 結果로 ...

伊國人民의 激昂

首相무쏠리니 狙擊에

露國大使館에 投石

佛國農務長官

後任決定

旅券全廢를

萬國이 主張

北極探險發程

諾威아문젠大佐

無電으로 報告

飛機正面衝突

乘組者慘死

阿片取締

會議內容

近近 榻府(?)附議

樞相親任은

十三日中擧行?

關東勞働會에서

陰謀事件發見

會本部의 家宅을 搜索

內閣改造와

首相의 眞意

副議長後任은

平沼氏推薦觀測

山縣氏說有力

單獨改造希望

原總務訪邊相

土木技師增員

日本對外貿易

四月上旬中

各鐵道人員比例

人事消息

八面鋒

嗚呼古筠居士 (五十)

不遇의 先覺者 金玉均의 追憶

一難去 一難後到

徒步連絡으로

京漢線全通

日佛通商條約

近近具體案提示

亡命中의 金氏

昨日附夕刊押收

削除後號外發行

面所新築費를 戶別割에 添徵
所望에 反한 新面長專斷 / 下柳面民決心反抗

黃海道瓮津郡下柳面에서는 不平이 떠날날이 업서 一般面民들은 不安에 싸혀 民心이 자못 騷亂하야 오든바 今年一月頃 金基秀氏가 面長椅子를 新占케되매 一般面民들은 期待가 만턴바 近日에 至하야서 面民들은 如前하게 또다시 物議가 紛紛하야 下柳面에 對한 不平이 漲天하다는데 內容을 듯건대 本來 下柳面事務所는 草葺小屋으로 諸般施設이 狹窄하다하야 新任面長 金基秀氏가 面事務所를 新築할 豫想으로 面協議員會를 召集하고 面協議員들과 意見을 交換한 結果 面事務所建築費를 戶別割에 加入募集하기로 決定하고 面所新築費募集方法에 對한 諸般準備는 벌서 終了되엿다는데 內幕을 窺知한 一般面民들은 大醬憤慨하야 面民의 無智를 侮蔑하야 如斯한 盲目的 手段으로 面民의 意思를 無視하고 單獨的으로 眼下無人의 妄動을 敢行한다하야 자못 民心이 紛紛하다는데 今番事件에 對하야는 面民들은 此를 徹底히 劾하는 同時 該面長이 今番 取한 態度를 엇外지 反抗하리라더라(新院)

代表五十餘名은 此를 郡面當局의 陳情할事 三、萬一如意치못한 時는 面事務所建築費를 不納하기로 同盟하고 積極的으로 反對할事 四、郡面當局의 下回如何를 보아서 다시 協議會를 開催할事(松坡)

江西燒戶救恤

江西郡岐陽市에 幾日前 大火가 起하야 七戶를 全燒하엿다함은 既報하엿거니와 火災를 當한 貧民을 救濟코저 當地 林浩彬、金周信、承元濟 三氏의 發起로 火災救恤 約二百圓을 募集하야 金興贊外六戶에 分配하엿다고(江西)

泡浦排水工事

永興郡北便에 잇는 泡浦는 原平里로 新城里外지 至하기 長이 十里나 되는데 浦邊에는 畓이 二百餘石落이 나잇서 附近 五十里 住民은 全部 此를 耕作하야 生活하야 오나 泡浦의 排水가 無함으로 洪水가 나면 一年의 農作이 全部 虛空에 歸하야 實로 可怜한 形便에 在하엿든바 이제 當地有志 尹秉東氏가 發起하야 工事費數萬圓으로 同工事를 決行할 作定으로 被害地主三百餘名과 契約을 締結하되 該工事가 完成하는 時는 每石落平均 一斗五升의 水利料를 每年 支拂키로 하고 一流技術者를 招聘하야 實測한後 當局에 許可願을 提出하엿다는데 將次 完成되면 現在 田地의 水利뿐 아니라 泡浦外지 起墾케될터이라더라(永興)

出獄同志歡迎
絶對禁止

全南莞島郡所安面裴月里 宋乃浩(三二)氏는 光州刑務所에서 一年동안 鐵窓生活을 하다가 去月三十一日 出獄되엿다함은 既報한바어니와 여러人士의 歡迎裡에 光州에서 木浦外지 木浦에서 本鄕外지 去三日 自邸에 到着한바 當地에 苦待하고 잇든 人士들은 右氏를 歡迎한同時에 歡迎會를 大盛況으로 開催하기로 諸般準備에 紛忙中이던바 莞島警察署 高等係 以下 六七人이 警備船으로 當地에 出張하야 權李天 申晩熙 崔炳祚 申興熙 白葉鳳 五氏를 同駐在所로 招致하야 宋君歡迎會는 絶對禁止한다함으로 그 理由를 問한즉 이는 警察의 方針이라함으로 할수업시 停止되얏다더라(光州)

所謂分校를 設置한다는것이 本校에서 不遠한 新摥里에 設置하고 마랏슴으로 此에 [illegible] 尹秉東、[illegible] 四氏의 發起로 分校移轉期成會를 昨年三月에 組織하고 以來運動한 結果 幸히 當局의 許可를 得하야 同面厚平里에 移轉케되엿는바 人夫二千餘名과 工事費三千二百餘圓을 同里附近六個里에서 自願負擔한다하야 不遠間 竣功되리라더라(永興)

組織에 活動
合心並力하야 / 全羅兩聯盟에서

去月二十八日 全羅勞農聯盟側으로 委員五人 全南勞働農民聯盟發起準備會側으로 委員五人이 光州興學館에 모히여 會를 열고 李榮琪氏로 席長을 定하고 鄭炳龍氏로부터 統一에 對한 說明이 잇슨後 全南農民勞働兩聯盟創立準備에 對하야 討議하고 去四日附로 全南各郡各面細胞團體에 通知를 發하얏다는데 準備委員과 聯盟을 組織하[illegible]

◇元山漁員相助會發會式 元山漁員相助會에서는 本月十四日 元山市外中清洞 錨止時 谷中에서 發會式을 盛大히 擧行한다는바 元山各團體代表及元山有志一同을 招待하기로 하고 既이 招待狀을 發하엿슴으로 만이 來參하야 주기를 바란다더라(元山)

前月入境外人
一百三十一名

지난三月中에 國境인 新義州를 通過하야 朝鮮內地로 入來한 外國人의 數爻는 總計男女一百三十一名인바 其中 多數는 無國籍露國人 三十九名 其次에는 勞農聯邦共和國 二十五名 米國二十三名 英國二十一名 獨逸十三名인데 此를 職業別로 보면 無職四十四名 商人二十五名 技師十六名 藝術家十三名인바 그들의 行先地는 東京二十四名 神戶二十一名 米國二十一名 英國十三名 京城十名이엿다고 한다(新義州)

◇補選任員 [illegible] 外十一人

◇講習復設內容 金化靑年會에서는 今春부터 새로히 講習會를 設置한다는데 그자세한 內容을 듯건대 大正十二年四月부터 金化地方의 學齡超過兒童을 收容키 爲하야 當地公普校內에 速成科를 두고 今日外지 가르쳐 오든바 今年부터는 經費問題로 不得已 繼續할수 업게되엿던바 該校訓導 도잇는 金化靑年會長 朴海龍氏와 地方有志 諸氏의 發起로 金化靑年會館內에서 未久에 開學한다는데 此에 對하야 該郡守 李揆夔氏도 多大한 贊成을 한다고(金化)

◇決議 一、朝鮮社會運動線을 統一케 하는者는 排斥할것 一、尙州衡平運動을 妨害하는 某의 不正事實을 調査하야 社會的으로 此를 葬할것 一、一般團員의 意識을 促成키 爲하야 每週日曜마다 社會講座를 開催할것

◇淮陽靑年臨總 江原道淮陽靑年會新任會長 劉徽厚氏가 事情에 依하야 辭任한後 更히 會長及幹事長을 推薦하기 爲하야 臨時總會를 本月四日 本會館內에 開催하고 投票選定한바 會長은 高百烈 幹事長은 宋寅毅氏로 選定하고 其他 決議事項은 如左하다고(淮陽) ◇決議 一、會有地小作規定 一、會有山野에 植木할일 一、等路植木할일 (其他團體事業에 關한件)

平南林產總額
五百四十萬餘圓

大正十四年度의 平安南道에서 產出된 林產總額을 보건대 計五百四十萬二千餘圓인데 種別로하자면 左와 如하다더라 ▲用材二十三萬四千尺 三十一萬六千圓 ▲新材二千一百九十三萬九千貫 四十四萬九千圓 [illegible]

蠶業技術員會

[illegible]

元山各派有志會
電氣値下案討議
電燈料金減額期成會發起 / 吾人의 最後對策決議

[illegible] 聯合으로 電燈料金減額期成會를 組織하고 同會에 出席할 各洞代表委員으로 九十餘名을 選拔한後 特히 電燈減額標準研究委員으로 南百祐 洪鍾熙 李文五 孟瓊植 南忠熙 五氏를 選定하고 左와 가튼 決議를 行하얏다더라

◇決議案

一、電燈料金에 對하야 二割以上 減額을 標準하야 研究委員이 此의 研究를 迅速히 한後 十日 彼我人聯合會合席上에서 電料二割以上引下를 極力主唱하되 萬一日人側에서 二割以下引下를 主唱하거나 其他의 意見이 不合할時는 우리 朝鮮人側은 當席에서 即時로 脫退를 宣言하고 우리 朝鮮人만으로 市民大會를 開하야 最後의 勝利를 得하기外지 積極的 運動을 期함

一、吾人은 電氣料金의 減額을 以上과 如히 斷行을 期할 同時에 元山水力電氣會社의 反省을 促함

安州農校
學生總動
昇格을 爲하야

[illegible] 公吏의 養成機關이 나又는 上級學校入學資格을 認定함에 잇지안코 卒業後 直接農業에 從業함을 主眼方針으로한 故로 實現問題는 매우 困難하다는대 그러나 學生一同은 어대外지 目的을 貫徹하기 爲하야 學校內에서 昇格運動部를 組織한後 各方面部員이 巡回하며 贊成과 聲援을 要求하는 中이라더라(安州)

光進幼園落成

[illegible]

虎山公普分校
移轉工費自擔
六個里民이

[illegible]

福興靑年創立

[illegible]

巨濟靑聯
漁組에 警告
總問題로

[illegible]

面所新築과
移轉地點問題

廣州郡突馬面에서 廣州郡突馬面現亭子里에 잇는 事務所는 今般 面民이 負擔하야 新築하기로 決定되얏는데 現亭子里는 面一隅인 故로 今般 新建築을 期會하야 位置를 變更코자 하는데 郡面當局은 市場이 有한 盆唐里로 移轉키로 內定되야 同面十一里中 五洞里는 盆唐里近方에 잇는 故로 此를 贊成하고 麗水里 二梅里 野塔里 葛峴里 島村里 下大院里 六洞里에서는 面中央地인 野塔里로 移轉함을 希望하야 面民間 意見이 相違되야 面當局은 期於코 盆唐里로 固執하는 故로 前記六洞區長及有志代表三十餘名이 去十五日 麗水里 李聚泳氏家에 會合하야 面事務所移轉反對運動會를 開催하고 左와 如히 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面事務所의 位置는 面中央地인 野塔里로 定할事 二、面內有志 [illegible]

山南少年創立

盈德郡 丑山面上元洞少年及附近少年들은 山南少年親睦會를 發起하야 去月十五日 創立總會를 臨時事務室에서 開催한바 多數한 會員이 出席하엿스며 當日 決議한 事項과 選된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決議 一、每月十五日 定期로 月例會를 開催할事 一、討論童話會等을 開催할事

巨濟鄕校新方針
掌議一窠에 一金三四十圓也 / 儒行은 아니라고 非難이 藉藉

慶南巨濟鄕校에서는 建物을 修理하기 爲하야 島內九面에 二千餘圓을 分擔식혀 合으로 從事者이 冊褓를 쥐고 村村으로 巡行하면서 一時 閭閻人을 苦케한다더니 近日所聞에 依하면 所謂 兩班輩로 有名한 延草面에서는 그 面負擔額 三百圓을 面長 또는 一二兩班들의 專制的 手腕으로 一般面民에 差等的으로 分排하고 各里區長들로 하야금 徵收한다하며 또 그 鄕校에서는 掌議 一名에 三百十圓式 밧는 新方針을 實行한다는데 그래서 鄕校에 從事하는 一派를 除한 外의 一般有識者들은 堂堂한 鄕校財產을 두고 修理費를 一般民衆에 請求하는것이 矛盾인 同時에 去年風災와 海凶으로 住民生活이 極難한 此際에 巨額의 金錢을 募集하는것이 또한 不可하며 또 掌議에 三四十圓 金錢을 맛는것은 수는 者가 願하는것인則 法律上 收賄外지는 안될지 모르나 孔子를 崇奉한다는 所謂 儒子의 道는 아니라고 輿論이 頗多하다며 各靑年團體들은 크게 憤慨하야 各其鄕校에 警告文을 보내려하고 境遇에 依하야서는 講際討演을 열것이라고 議論이 紛紜하다더라(巨濟)

竹細工科新設
金池公普 / 校長熱誠으로

全北南原郡金池公立普通學校는 設立當初 四學年制로 既히 二回卒業者를 出하엿는데 有志의 渴望과 該校長 金永準氏의 熱誠으로 今年度 六年制認可를 受한 同時 校舍增築과 共히 本道內特產品인 竹細工科를 新設하야 一般學生及學父兄諸氏에게 在來虛華浮麗의 思想을 除去하고 質實勤着의 觀念을 涵養케 한다더라(南原)

◇金化靑年定總 金化靑年會에서는 去六日 金化靑年會館內에서 定期總會를 하엿다는데 決議事項은 如左하다고(金化) ◇決議 一、任員補選의 件 一、桑園苗圃設置의 件 一、講習會開催의 件

◇寸鐵◇

地方人事

● 家庭에업지못할常備神藥

方名	定價	効能
解熱散	五二十十錢	感氣、瘧疾
袪痰散	五二十十錢	咳嗽、百日咳
實丸	二十錢	消化、氣鬱
健胃固腸散	五二十十十錢	痢疾、泄瀉、吐瀉
含嗽藥	二十錢	咽喉症、含用洗
驅梅膏	二十錢	下疳、梅毒、切傷
百應膏	二十十錢	拔根、濃吸出
開明水	二十十錢	流行眼疾、風眼、爛目、其他
電氣丸	五二十十錢、二圓	[illegible]
金鷄臘丸	五二十十錢	瘧疾、腹痛
神効膏	五二十十錢	疥瘡、癍疹、瘙癢
タルマ膏	二十錢	痲疹、火傷、凍傷
大塚胃散	五二十十錢	滯症、消化不良
驅虫散	五二十十錢	蛔虫、蟯虫、五疳
萬能液	五二十十錢	風丹、癬癬
沃度丁幾	五二十十錢	打撲傷、瘧眼、骨刺
治痲球	一圓、一圓八十錢	痲疾、冷痲、白痲、消渴
根治丸	一圓、一圓八十錢	一、二、三期梅毒必根治及下疳
化粧用 미안액	五三十十錢	顔手의荒을止하며 가장優秀한美顔材料
治痛液	二十錢	齒齦尖、齒痛尖

右는 京城府賣藥界에 名聲이 赫赫한 家庭常備藥으로 原料의 精密함과 効能에 迅速함은 本舖에 限함

製造發賣元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救世藥館 二錢郵票보내시면 割引票及規則書付呈 電話本局二九六九番 振替京城一二六九番

クラブ 크라부 懸賞當選發表 크로스워―드

應募總數 一〇一六七通 正解數 九六六九通

當選者氏名

壹等 (高等脊廣洋服 一着宛) 貳名 釜山府大倉町一 宮田八重氏 / 大連市日新街二〇 櫻井元男氏

貳等 (蓄音機 レコード十枚付 一台宛) 五名 大連市伊勢町 堤あさを氏 / 旅順工科大學寄宿舍 三好新氏 / 釜山府富平町二丁目 宮脇球氏 / 長春吉野町二丁目 神谷スヾ氏 / 朝鮮全南寶城郡栗浦 永野千代子氏

參等 (上等二枚續毛布 一枚宛) 拾名

四等 (オーバーセータ 一着宛) 貳拾名

五等 (プラトン萬年筆 一本宛) 五拾名

六等 實用家庭アイロン 壹個宛 百本
七等 娛樂雜誌 苦樂 半年分宛 貳百本
八等 カテイ石鹼 壹個宛 五百本
九等 クラブ齒刷子 壹個宛 五百本
拾等 クラブ煉齒磨 チューブ入中 壹個宛 一六三本

上記六等以下의當選者의氏名은紙面의關係上此를省略하고直接當選通知와同時에賞品을發送付합니다

昨夏크라부美字크로쓰워―드를愛用者에優待하는意味로發表하오니賞賞심자말수수여기의解答總數는其總數一萬百六十七通에達하엿습니다此에對하야愼重히審査를行한바不正解는無効合計四百九十八通을除하고九千六百六十九通의多數에達한正解數를得하엿슴으로更히此中으로부터一等으로十等外지三千名의當選者를決定하기爲하야去三月十一日子라부化粧品本舖에서嚴正公平하게抽籤을行한結果左記와如히當選決定하엿사옵기玆에發表합니다

クラブ齒磨 크라부 齒磨 푸라톤 잉크

カテイ石鹼 가테이 석감 푸라톤 萬年筆